

# 우리나라 주거공간에서의 수장공간 종류와 크기 변천에 관한 고찰\*

-1955년에서 1985년까지 지어진 공영 및 민영주택을 중심으로-

An Investigation on The Changes of Storage Space in Korean Housings

-On The Vernacular Housings Built During 1955-1985-

최재순\*\* Choi, Jae-Soon

## Abstract

This study is on investigation of sizes, functions and positions of storage space in the house, which is basically necessary for effective using of limit house space.

The Storage spaces in Korean vernacular housings are intensively investigated to evaluate their usage and to extend their utility for modern life.

Data and materials on the storage spaces in typical houses were taken from the "NamSa Village" and Urban Single-Detached House provided by K.N.H.C.

In order to get the fundamental materials, related references are widely investigated and interview and direct visiting have also been made.

The results are obtained as follows.

1. There are many kinds of storage space in the rural detached house, however this space could approximately classified as five kinds.

2. The number of "BYUKJANG" and "BANCHIM" are more equipped in apartment houses rather than rural detached houses.

3. There are more kinds of storage space in the public detached houses rather than the public apartment houses.

4. In the apartment houses constructed by private companies, more storage space are generally equipped rather than public apartment houses.

## I. 序論

### 1. 研究의 背景

우리나라 收藏空間의 역사는 원시주거의 저장공에서부터 시작되어 자연적,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 收藏空間은 구조·마감재료·위치·크기 기능에 따라 명칭이 다르고, 지방적 특색을 많이 보이면서 종류가 많아진다. 좌식 생활을 하는 재래주택<sup>1)</sup>에서는 이동식家具보다, "收藏"空間이 각종 살림살이와 저장용 생활용품을 보관·정리·정돈하는 곳으로 이용되어 왔다.

우리나라가 경제적 발전과 함께 都市化·近代化가 이루어지고, 한편으로 대도시의 인구 유입에 따라 住宅의 대량 공급이 요청되고, 이것은 단독주택보다 집합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住宅平面의 획일화·단순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집합주택은 단독주택보다 중·개축을 비롯한 내부공간의 변경 등이 쉽지 않고, 고층화·중앙집중 난방화에 따라 밀폐화되고 있어, 분양시의 내부공간이 기능별로 크기 및 위치가 생활에 알맞게 설정되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내부 공간 중에서 收藏空間은 私의 영역인 寢室이나, 公의 영역인 居室, 家事作業 영역인 부엌, 生理위생영역인 목욕탕 등 모든 곳에 요구되고 있어, 각 공간에 얼마만한 규모로 어떻게, 어느 위치에 설치하여 주느냐 하는 것이 생활의 질서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農村單獨住宅에서의 收藏空間을 검토·정리함으로써 기본적인 收藏空間의 유형을 찾아보고, 현대 集合住宅에 적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해 보기위해 農村單獨住宅, 근대화 과정에서 지어진 도시 공영 국민주택(단독주택), 그리고 현대 민영 및 공영 集合住宅에서의 수장공간의 물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 2. 研究目的

본 연구는 收藏空間계획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 (1) 農村單獨住宅에서 수장공간으로 이용되는 공간의 명칭과 특징을 검토한다.
- (2) 收藏空間을 구조적, 기능적 측면에서 분류하여 보고, 유형화한다.
- (3) 주택종류, 공급시기, 주택의 규모, 공급주체별로 收藏空間의 물리적

1) 하종한, 조선조 목자형 주택의 수장공간에 관한 연구-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영남대 석사 학위논문, 1985.12, p23

2) 재래주택은 전래의 우리생활을 그대로 담고 있는 주택을 이야기하며 본 논문에서는 농촌주택을 가르킴.

3) "收藏"이란 물건을 정리하여 넣어두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물건을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제자리에 맞게 정돈하여 주위를 혼란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收納"이 금품 따위를 받아 거두어들이거나 거두어바치는 의미를 가지는데 비해, "收藏"은 거두어들여 깊이 간직하면서 쓰임새가 있도록 정리 보관하는 의미에서 본 연구는 "收藏"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4) 최재순, 대도시 집합주택에서의 수납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동경공업대학 학위논문, 1990.12, p2

\*본 연구는 1993년도 인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수혜에 의해 수행된 것임.

\*\*이사, 시립인천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특징을 찾아보고 비교한다.

(4) 앞에서 유형화된 收藏空間이 農村單獨住宅과 都市型單獨住宅, 공영(대한주택공사) 集合住宅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초기공영 집합주택과 집합주택 건설초기로 부터 20년후의 공영집합주택, 그리고 민영집합주택 모두에 어느정도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수장공간의 소유율과 수장공간면적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한다.

### 3. 研究의 範圍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收藏空間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sup>6)</sup>보다, 주택 종류별 전체<sup>6)</sup> 또는 단독주택<sup>7)</sup>과 아파트<sup>8)</sup>의 물리적 분석이 많고, 본 연구에 직접 관련된 선행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으로 하는 農村單獨住宅에서 현대 集合住宅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를, 현존하는 주택으로서 건설년도별 · 건설주체별 · 주택종류별로 구분하여 나누었다. 그리고 集合住宅에선 국민주택 규모 이하와 이상으로 나누어 주택면적에 따른 收藏空間의 유형별 소유개수, 소유율 및 수장공간의 종류별 규모와 평균 총면적, 총면적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비교하여 보았다.

收藏空間을 유형화함에 있어, 다른 기능을 가진 공간에 예측되어 일체화된 수장형식보다, 건축공간 그 자체가 주로 수장의 기능을 가진 收藏空間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내부구조상의 변화요소나 지방적 특색에 따른 공간명칭의 상이 등은 제외하고, 구조적 특징과 기능적 특징과 관련된 수장공간의 명칭, 바닥재료, 바닥면의 높이, 가로 세로부위별 치수, 위치, 수장공간의 면적을 분석대상을 삼았다.

### 4. 分析資料의 收集 및 選定方法

(1) 農村單獨住宅의 단위평면은 현존하는 일자형주택의 실측조사 자료인 남사마을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평면도 및 배치도를 선정하였다.

(2) 都市型 單獨住宅의 단위평면은 1957년부터 1965년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한 주택의 평면도를 선정하였다.

(3) 〈집합주택 1〉은 1958년부터 1979년까지의, 〈집합주택 2〉는 1980년부터 1984년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한 아파트의 평면을 종류별로 모두 수집하여 선정하였다.

(4) 〈집합주택 3〉과 〈집합주택 4〉는 민간회사에서 건설한 아파트들로서 아파트붐이 일기 시작한 1976년부터 1985년까지 건설된 평면도를 대상으로 치수가 정확하게 기입된 것만을 선정하였다. 〈집합주택 3〉은 국민주택규모미만, 〈집합주택 4〉는 국민주택규모이상으로 하였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선정된 단위평면은 총 671개이다.

### 5. 分析方法

(1) 農村單獨住宅의 收藏空間 명칭은 남사 마을의 조사 보고서 및, 피산 김씨댁 조사 자료 그리고 많은 농촌 주택 조사 보고서와 조사자들의 경험담을 참고로 하였으며, 직접 대표적인 피산 김씨댁을 방문하여, 치수를 재고 명칭조사를 병행하였다.

5) 허종한, 조선조 목자형 주택의 수장공간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84.12

6) 신수현, 1945년 이후 서울지방 일반 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83.12

7) 문홍길, 개화기 이후 한국 전래주거건축의 변천에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1.12.과 조용훈, 한국 도시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60년대 이후 지어진 민간업자 주택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3.12이 있음

8) 장광명, 도시 공동주택 단위평면의 변천에 관한 연구 -70년대 이후 서울시 민간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5.12

9) 본 논문에서는 농촌주택과 도시 집합주택의 수장공간을 비교 검토하게 되어 일자형의 농촌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선택한 것임.

(2) 農村單獨住宅에서는 收藏空間을 棟마다 설치된 상태가 다르므로, 안채, 사랑채, 행랑채(부속공간 또는 별채)로 나누고, 收藏空間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다시 분류하는 방법으로 하여 유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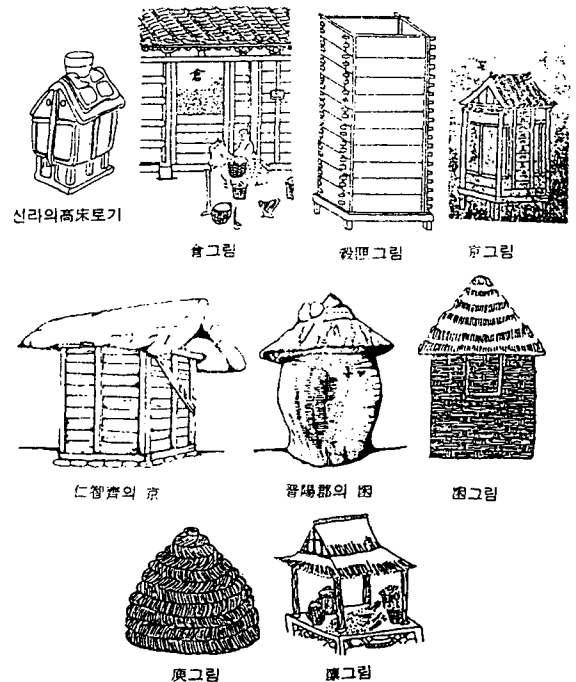
(3) 유형화된 收藏空間의 종류를 도시형 단독주택과 集合住宅에 적용하여, 주택규모와 收藏空間 종류에 따라 적용시켜 변화추이를 파악한다.

## II. 本 論

### 1. 農村單獨住宅 收藏空間의 분석

(1) 農村單獨住宅 收藏空間의 명칭과 기능

日常生活을 영위하여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곡식을 보관 · 정리 · 정돈 해 두던 收藏공간을 在來住宅에서는 저장되는 곡식의 양과 형편에 따라 두지나 穀匣<sup>10)</sup>의 크기를 적절하게 잡는다. 穀匣은 옮기기도 편리하고 쥐나 새를 막을 수 있게 하였으며 지나치게 많은 곡물을 퍼내어 허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달 쓰일 용량을 미리 정하고 매일 매일의 분량을 꺼내 쓰도록 고안하기도 하였다. 이 穀匣과 같은 기능을 한 穀倉으로서 독립된 建造物에 因京이었다. ‘倉穀欄也, 釋名曰倉藏 藏穀物也’는 林園十六志가 소개한 王氏農書에 실린 倉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에는 倉을 도해한 그림이 실려있어 차마필으로 方形의 角柱를 세우고 기둥사이에 또 문주를 세우고 그 사이에 관자를 옆으로 끼워넣었다. 農書에는 같은 橫架板壁이라도 四起<sup>11)</sup> 하지않은 형태를 倉이라고 四起한 형태는 京으로 구분하였다.<sup>12)</sup> 그 외에 倉의 종류를 가리키는 이름이 “京”, “鹿”, “困”, “會”, “庚”, “廩”등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림 1 참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와같은 수장공간들은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한 농작물의 보관 · 저장공간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별채 형태의 수장공간을 대표적으로 지칭하는 “倉”은 뒤주(斗廚)와 함께 곡물을 보관하는 공간(穀間)으로 고구려



〈그림 1〉 각종 倉의 종류

10) 穀匣은 곡물을 담는 方木의 匣으로 그림과 같은 형태이다.

11) 四起란 한건물의 바닥면이 지표에서 떨어진 높이에서 結構되는 양식을 일컫는다. 다시말해 원두막이나 누마루처럼 마루를 높게 건 다락의 한 형태를 지칭한다. 습기를 피하여 저장하기 위한 구조형태이다.

12) 신영훈, 함양 개평리 정씨댁의 小倉, 미술자료 제 15호, 1971. 국립박물관



이 집에서는 집안에 큰 일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광」에 여러 개의 시렁 또는 선반을 아래 위에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며, 시렁 위와 바닥에 여러 개의 독 속에 쌀이나 각종 곡식을 담아 보관하였다. 선반에는 여러 가지 작은 살림도구가 놓여 있기도 하고, 합지나 광주리에 각종 보관 음식물을 담아 엮어 둔다. 광의 규모는 경제적 형편에 따라 몸체에 덧붙여 짓는 경우와 독립적인 건물로 만들어 이용하는 경우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이 집에선 겨울철에 대비한 김치광을 붙여지어 8개의 김치독이 새우젓독과 같이 땅속에 묻혀있다.

(2) 農村單獨住宅 收藏空間의 치수

분류되기 전의 남사마을 주택 82호가 소유하고 있는 收藏空間의 명칭별 폭과 깊이 바닥면의 높이(기준면에 대한)를 분석한 결과는〈표

2)에서 보이는 것과 같고 바닥면의 높이를 조사 대상자료의 평균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셋으로 구분된다. 즉 「벽장」·「골방」·「고방」·「뒤주」가 한 그룹이 되고, 「광」·「헛간」·「곳간」·「창고」, 그리고 「다락」으로 나뉘게 된다. 이들 세 그룹은 바닥면이 낮은 것일수록 중요도가 낮은 물품이거나 물품의 성질상 높은 곳에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 수장되었고, 주로 곡식을 비롯한 장기간의 저장을 필요로 하는 물품이 보관되는 곳은 통풍을 고려하여 바닥면을 높이면서 창문과 문을 달고 바닥 재료를 마루로 하는 등의 신경을 썼으며, 말리면서 저장되어야 할 물품은 온돌방이 이용되거나 걸어두는 수장형태를 취했다.

〈표 2〉 農村單獨住宅의 收藏空間유형별 폭·깊이·바닥면 높이

대 상 공 간	조 사 수	평균면적(m <sup>2</sup> )	최 소 치(m <sup>2</sup> )	최 대 치(m <sup>2</sup> )
주 호 전 용 면 적	82	90.92	25.2	296.3
수 장 공 간 면 적 합 계	327	26.31	0	85.25

수장공간 종류	조사수	평균면적(m <sup>2</sup> )	폭(cm)	깊이(cm)	바닥면높이(cm)
		(최소치·최대치)	(최소치·최대치)	(최소치·최대치)	(최소치·최대치)
수 장 공 간 종 류	A : 벽장 (35)	0.77 (0.27~2.24)	126.0 (59~255)	60.2 (31~116)	94.1 (50~163)
	B : 골방 (6)	3.30 (1.91~4.27)	224.5 (117~255)	150.2 (75~175)	94.0 (93~98)
	C : 다락 (6)	3.11 (1.91~5.10)	214.5 (110~255)	153.7 (90~265)	210 (200~220)
	D : 고방 (21)	3.04 (1.23~12.4)	231.6 (107~375)	130.1 (50~330)	88.5 (11~136)
	D : 뒤주 (11)	3.50 (1.20~21.8)	157.5 (74~700)	177.5 (120~312)	75.1 (30~154)
	D : 광 (45)	8.81 (3.19~32.6)	294.2 (163~740)	291.8 (130~455)	24.5 (13~40)
	D : 곳간 (2)	8.9 (8.82~9.05)	267.5 (245~290)	336.0 (312~360)	0 (0)
	E : 헛간 (122)	7.08 (1.42~21.4)	261.2 (100~617)	266.1 (142~528)	31.6 (0~55)
	E : 창고 (79)	9.01 (3.71~28.0)	284.1 (140~700)	310.2 (130~550)	0 (0)

〈표 3〉 주택 종류별 收藏空間의 소유형태

주택종류별	조사 대상 (N)	수납공간 소유주호수 (소유율 %)	수납공간 총소유수 (평균소유수)	소유율 (%)					범례
				A	B	C	D	E	
농촌단독 주택	88	82 (93%)	327 (평균 : 3.99)	18.7	24.2	61.5			A형 벽장
도시단독 주택 (공영)	47	43 (91%)	108 (평균 : 2.51)	29.6	51.9	15.7			B형 반침
집합주택1 (공영초기)	78	55 (60%)	91 (평균 : 1.65)	31.9	40.7	5.8	18.7		C형 다락
집합주택2 (공영최근)	122	72 (59%)	87 (평균 : 1.21)	14.5	55.2	29.9			D형 내부창고
집합주택3 (민영국민 주택규모 이하)	200	182 (91%)	417 (평균 : 2.29)						E형 외부창고
집합주택4 (민영국민 주택규모 이상)	136	28 (94%)	406 (평균 : 3.17)	31.2	25.5	16.5	26.4		
합계	671	562 (84%)	1436 (평균 : 2.55)	26.67%	21.03%	1.63%	18.94%	31.75%	

## 2. 單獨住宅과 集合住宅의 收藏空間 比較分析

### (1) 내부 收藏空間의 소유실태

「벽장」은 벽면의 일부가 收藏空間으로 이용된 것으로, <표3>과 <표4>에서 평균면적을 비교하여 보면 0.77㎡에서 1.56㎡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農村單獨住宅에선 「벽장」이나 「반침」·「다락」등의 내부 收藏空間보다 곡물저장이 가능한 외부 收藏空間의 소유율이 높으나, 農村單獨住宅에선 내부收藏空間의 소유율이 훨씬 높다.

「반침」은 그 크기로 보아, 農村單獨住宅에선 「벽장」보다 훨씬 크던 것이 集合住宅에 외선 작거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集合住宅 계획에 있어 收藏空間의 기능이나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적당히 남는 공간을 收藏空間으로 만들어 준데에 그 원

(표 4) 주택 종류별 收藏空間의 면적비교표

#### 農村單獨住宅

대 상 공 간	조사 수	평균면적 (㎡)	최소치 (㎡)	최대치 (㎡)	
주호전용면적	82	90.92	25.2	296.3	
수장공간면적합계	327	26.31	0	85.25	
수 장 공 간 종 류	A : 벽장 CL1	35	0.77	0.27	2.24
	B : 반 침 CL2	6	3.30	1.91	4.27
	C : 다락	6	3.11	1.91	5.1
	D : 내부창고 ST1	79	6.07	1.20	32.56
	E : 외부창고 ST2	201	7.12	1.42	28.0

#### 都市單獨住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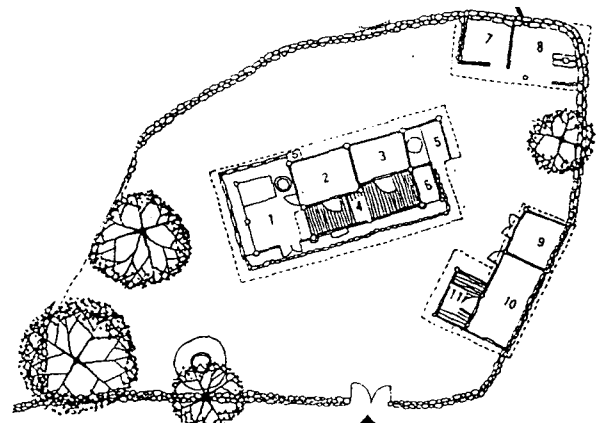
대 상 공 간	조사 수	평균면적 (㎡)	최소치 (㎡)	최대치 (㎡)	
주호전용면적	47	47.24	15.6	66.4	
수장공간면적합계	108	3.69	0	10.49	
수 장 공 간 종 류	A : 벽장 CL1	32	0.99	0.66	1.71
	B : 반 침 CL2	56	1.20	0.4	2.93
	C : 다락	17	4.23	2.89	5.72
	D : 내부창고 ST1	0			
	E : 외부창고 ST2	3	0.92	0.62	1.52

#### 集合住宅1 (公營初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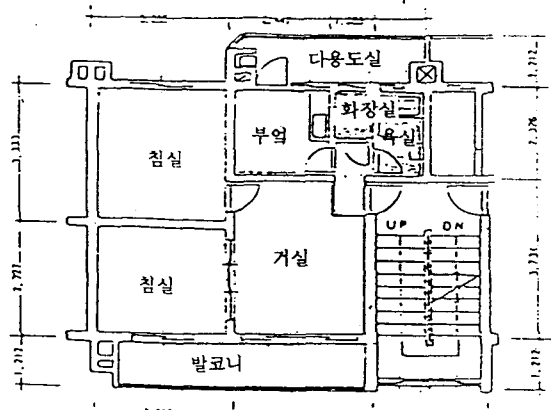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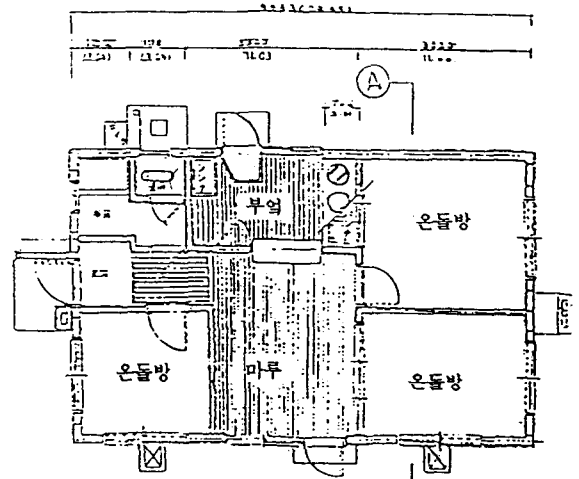
대 상 공 간	조사 수	평균면적 (㎡)	최소치 (㎡)	최대치 (㎡)	
주호전용면적	78	43.20	15.4	84.8	
수장공간면적합계	91	5.23	0	6.0	
수 장 공 간 종 류	A : 벽장 CL1	29	1.56	0	5.26
	B : 반 침 CL2	37	1.24	0	4.37
	C : 다락	0			
	D : 내부창고 ST1	8	1.03	0	2.16
	E : 외부창고 ST2	17	1.40	0	3.38

인이 있지 않을까 한다.

「다락」은 農村單獨住宅에서 많이 이용된 공간이지만, 주택공사에서 처음 건설·공급된 국민주택에서 특히 주택 규모가 적으면서도 많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표5,표6참조> 그리고, 集合住宅이 건설되면서 난방방식이 연탄을 이용한 온돌이건,<sup>14)</sup>중앙집중식 난방에 의한 온돌이건 「다락」은 없어지게 되었다. 또한 集合住宅에선 가격문제에서 볼 때 평당 건설 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천정고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다락」은 만들기가 더욱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이나, 「내부창고」는 農村單獨住宅에선 하나의 방만한 큰 공간이던 것이(평균 6.07㎡) 集合住宅에선 상당히 작은 공간으로(평균 0.28㎡~1.03㎡)할애되어 있다. 그리고 공영 주택에선 전혀 배려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주택규모가 워낙 작아 할애 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1. 부엌      4. 마루      7. 헛간      10. 방
- 2. 안방      5. 함실      8. 헛간 겸 화장실      11. 대청
- 3. 방      6. 두지      9. 헛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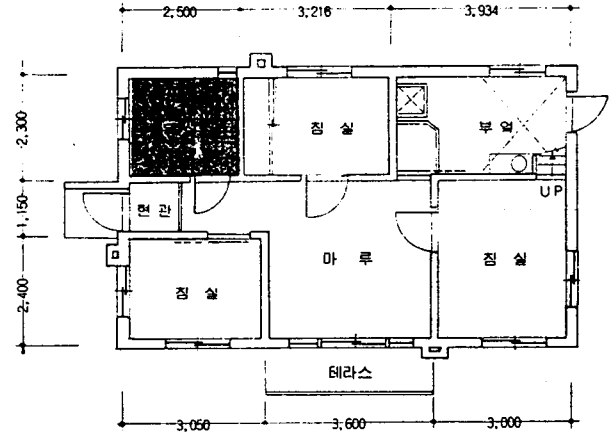


14) 연탄을 이용한 온돌 난방인 경우, 부엌면이 방바닥면보다 낮아지게 되므로 단가를 이용한 다락방으로 이용될 수 있음.



〈표 6〉 대한주택공사 단독주택의 면적별 수장공간의 소유실태

주택공간 면적 (㎡)	A 벽장		B 반침		C 다락		D 내부창고		E 외부창고		합계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31-40	0	5	5	0	4	1	3	2	5	0	5
41-50	1	19	7	13	10	10	13	7	18	2	20
51-60	1	3	1	3	0	4	3	1	3	1	4
61-70	0	7	1	6	4	3	3	4	4	3	7
합계	2	34	14	22	18	18	22	14	30	6	36
소유율(%)	94		64		50		39		17		
평균면적	0.94㎡		1.12㎡		4.26㎡		1.23㎡		1.35㎡		8.9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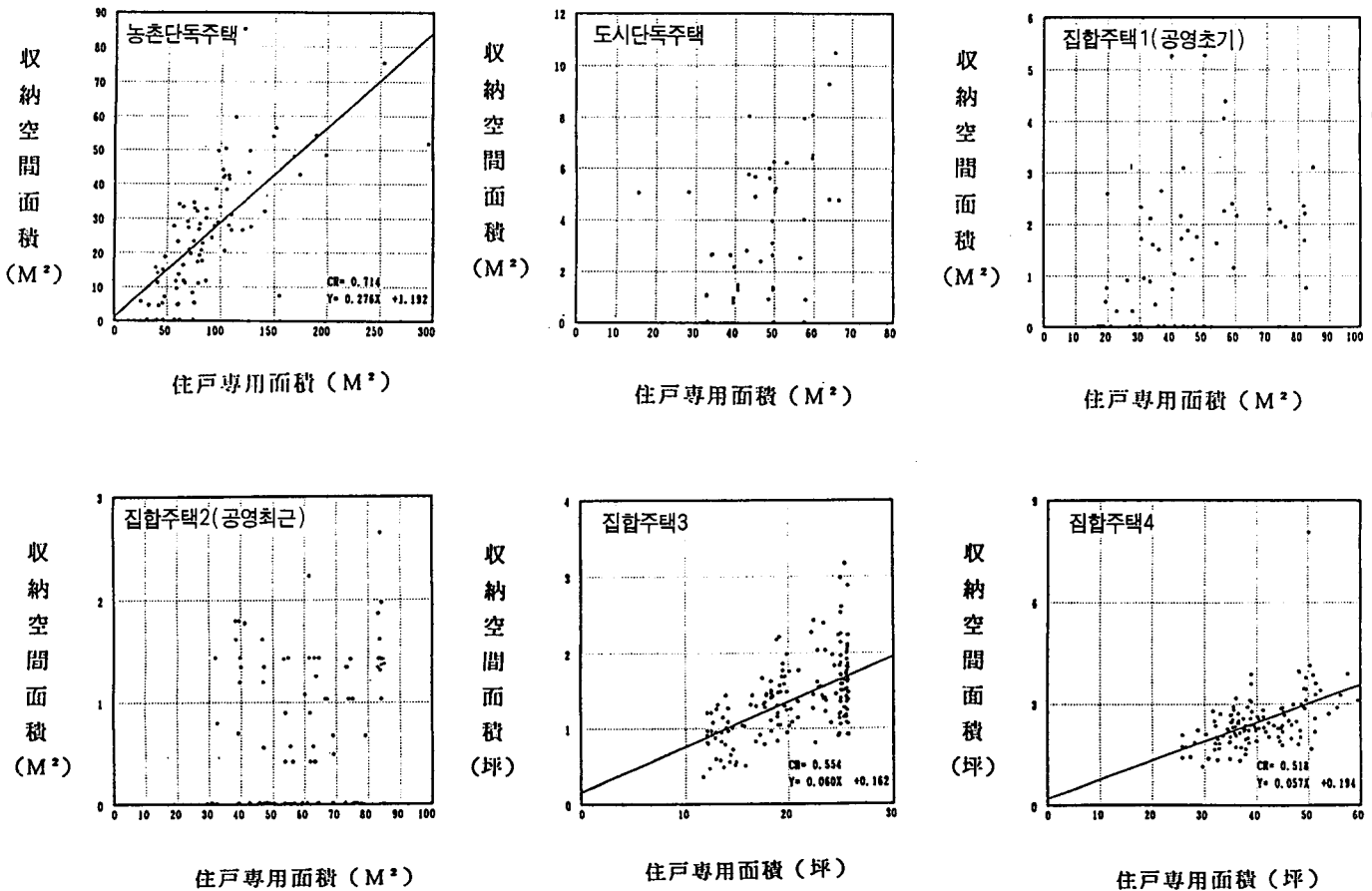


(2) 외부수장공간의 소유실태

農村單獨住宅의 외부 수장공간은 명칭 종류가 내부 수장공간에 비교하여 그리 많은 것은 아니나, 소유율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수장되는 물품의 양이 많고, 상당한 공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단독주택이라도 도시형인 공영 국민주택에서는 소유율은 물론, 그 규모가 무척 작아 수장되는 물품이 한정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집합주택이라도 공영집합주택(초기, 최근 모두)은 민영집합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과 비교하여 외부창고 면적의 평균치가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공영집합주택에선 단독 난방장치를 이용하는 곳이 많아 난방연료인 연탄을 쌓아둘 곳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 주호규모와 수장공간 규모

주호규모와 총수장공간의 규모를 비교하기 위하여 주택 종류별로 〈그림 3〉에 주호전용면적에 대한 수장공간면적을 표시하여 보았다. 그 결과 주호전용면적이 커질수록 수장공간의 면적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農村單獨住宅과 民間集合住宅이었다. 〈그림 3〉에도 나타나듯이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農村單獨住宅이지만, 集合住宅들만 비교하여 볼 때, 공영集合住宅보다 민영集合住宅에서 수장공간의 소유율과 규모가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은 민영集合住宅이 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생활자의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수장공간을 많이 도입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림 3〉 주택면적에 대한 수장공간의 면적

### III. 結論

1) 農村單獨住宅에서의 收藏空間의 종류는 바닥의 마감상태에서 볼 때 흙바닥, 마루, 온돌바닥의 세가지로 분류되었고, 공간의 특성에서는 내부공간화된 방식, 불박이식수장공간과 외부공간화된 수장공간, 그리고 독립된 별채로서 존재하는 수장공간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2) 農村單獨住宅에서의 收藏空間의 바닥면 높이를 중심으로 분류한 결과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며, 물품의 성질에 따라 분류 수 장되었음이 밝혀졌다.

3) 1)과 2)의 내용을 종합하여 수장공간의 종류는 다양하나, 대체로 「벽장」, 「반침」, 「다락」, 「내부창고」, 「외부창고」의 다섯 가지로 분류될 수 있었다.

4) 내부 收藏空間의 하나인 「벽장」이나 「반침」은 주택종류별로 그 크기가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으나, 農村單獨住宅에서 보다 集合住宅에 훨씬 많이 설치되어 있었다.

5) 외부 收藏空間의 소유율은 農村單獨住宅이 높았고, 集合住宅에 선 수장공간의 소유율이 낮았다. 그 대신, 내부 收藏空間의 소유율에선 반대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

6) 公營單獨住宅과 公營集合住宅의 收藏空間 종류별 보유 현황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公營單獨住宅의 경우 수장공간의 종류별 소유율이 높았다.

7) 收藏空間의 소유율과 규모(수장공간의 총면적)에 관하여 살펴 볼 때, 公營集合住宅인 경우 民間集合住宅의 경우보다 소유율이 상당히 낮으면서(59-60%), 수장공간의 총면적의 평균면적이 5.23㎡(공영초기 집합주택), 2.79㎡(공영최근 집합주택)와 4.66㎡(민영국민주택규모이하의 집합주택), 8.15㎡(민영국민주택규모이상의 집합주택)로 그차이를 보였다.

### 표출처

표 5 : 1957년에서 1962년까지 I.C.A.자금(한국산업은행관리)에 의해 용자를 받아 세워진 주택의 평면도를 분석한 것임. "공간" 1969년3월호의 PP97-103

표 6 : 1958년도 부터 1965년도까지 제시된 표준형 공영주택 평면도를 분석한 것임, '공간' 1969년1월호 pp97-102

### 참고문헌

1. 울산공대 건축학과, 남사마을, 울산공대 연구 논문집 14권 2호, 1983.10.
2.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20년사, 1979.
3. \_\_\_\_\_, 주택, 1958~1962, 대한주택공사.
4. 신영훈, 한옥과 그 역사-한국건축사서설-, 1972, 한국 고고미술.
5. 신영훈, 함양 개평리 정재택의 고택, 미술자료 제15호, 1971. 국립박물관
6. 공간26호 1969.1
7. 공간28호 1969.3
8. 신수현, 1945년 이후 서울지방 일반 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 1983.12.
9. 조용훈, 한국주택의 도시변천에 관한 연구-60년대 이후 지어진 민간업자 주택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3.12.
10. 문홍길, 개화기 이후 한국 전래주거건축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1.12.
11. 하중환, 조선조 ㅁ 자형 주택의 수장공간에 관한 연구-경북을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84.12.
12. 장광업, 도시공동주택단위평면의 변천에 관한 연구-70년대 이후 서울시 민간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5.12.
13. 이영주, 개화기 이후 한국 재래주택의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85.12.
14. 임재홍, 집합주거의 단위평면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1.12.
15. 최재순, 대도시 집합주택에서의 수납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동경공업대학 박사학위논문, 1990.12

(접수 : 1995. 3. 4)